2025.08.26.(화) 증권사리포트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이노스페이스
이젠 발사만 남았다
[출처]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애널리스트

470 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18일 약 4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예정 발행가는 1 주당 10,950 원(기산일 8/14, 기준가액 대비 25% 할인)이고, 보통 주 430 만주 발행 예정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9/18, 상장 예정일은 11/21 이 다. 이번 유증으로 조달된 자금은 크게 운영자금(261 억원), 시설투자(101 억원), 채무상환(100 억원, 브릿지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사는 지난해 7 월 상장 당시 공모자금 약 500 억원과 올해 3 월 CPS 발행을 통 한 자금 약 300 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후 고흥종합시험장 구축, 한빛-나노 발사대 제작 등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비용이 증가했고, 원래 올해 3 월로 예정됐 던 '한빛-나노'의 첫 상업 발사가 두 차례 연기되며 고객사로부터의 자금 유치가 지연된 것이 이번 유증의 주요 배경이라 발표했다.
추가적으로 동사는 유상증자 공시와 함께 무상증자 계획도 발표했다. 유상증자 일정이 완료된 후, 유증 청약자를 포함한 주주를 대상으로 무상증자를 진행할 예 정이다. 발행가는 액면가인 1,000 원으로, 소유주식 1 주당 0.5 주씩 배정되며 신 주 배정 기준일은 11/14, 상장 예정일은 12/4 이다.

두 차례 발사 지연
동사는 2 분기 매출액 5 억원, 영업손실 167 억원을 기록하는 등 사실상 유의미 한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올해 3 월 예정이었던 한빛-나노의 상 용 발사 서비스가 지연되며 발사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주가는 발사 관련 소식에 크게 반응했는데, 실제로 두 번째 발사 연기를 발표한 5/27 에는 주가가 전일대비 약 16% 하락한 바 있다.
두 차례 발사 지연 원인은 크게 1) 발사체 개발 문제와 2) 발사 허가 문제 두 가 지 측면이 있다. 먼저 발사체 개발에서는 산화제 공급용 전기펌프 부품(전기모터) 수급 지연 및 파손, 하이브리드 로켓모터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전기모 터 수급처 확대 및 로켓모터 재제작을 통해 현재 발사체두 개발 자체 문제는 대부분 해결된 상황이다.
둘째로 발사 허가 측면을 살펴보면, 동사의 우주 발사체는 국내가 아닌 브라질 알칸타라에서 발사가 진행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브라질 우주청으로부터 각각 발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브라질의 경우 건당 허가제가 아닌 면허제로, 지 난 5 월에 발사 면허를 획득했다. 따라서 최종 발사를 앞둔 현재ㄹ 우리나라 우주 청의 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허가를 위해서는 1 단 로켓 인증 시험이 필요한데, 기존 금산시험장에서는 한빛-나노의 25t 급 1 단 로켓 인증이 어려워 고흥시험장을 건설하게 됐다. 고흥시험장은 지난 4월 말에 준공됐지만,5 월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단엔진 인증 시험이 연기된 것이다.

우려보단 기대감

현재 마지막 관문인 1 단 인증 시험은 9 월 초로 예정돼 있다. 1 단 인증 시험이 완료되면,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이 날 전망이다. 고흥시험장 건축 이후 수차례 자체적인 테스트가 진행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9 월에 예정된 인증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상장 이후 두 차례의 발사 연기와 이번 유상증자 발표로 동사의 주가는 공모가 (43,300 원) 대비 약 71% 하락했다. 10 월 실전 발사에서의 성패가 가장 중요하 겠으나, 2023 년 15t 급 1 단 시험발사체인 한빛-TLV 의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발사 성공 가능성을 낮게만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 음으로 개최되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민간 우주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지 원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발사 전까지 주가는 우려보다는 기대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한다.

도표 1. **이노스페이스 실적 추이**

(십억원)	3Q23	4Q23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P	2023	2024
매출액	**0.0**	**0.2**	-	-	-	**0.0**	**0.2**	**0.5**	**0.2**	**0.0**
(%yoy)	-	-	-	-	-	-90.9%	-	-	-32.4%	-93.6%
로켓추진기관			-	-	-	-	0.2	0.3	0.1	0.0
로켓 제반기술 관련 용역			-	-	-	0.0	-	0.1	0.2	0.0
적층제조기술 관련 용역			-	-	-	-	-	0.0	-	-
연구용 재료			-	-	-	0.0	-	-	0.0	0.0
매출원가	0.0	0.1	0.0	0.0	0.0	5.4	0.2	1.0	0.2	5.4
매출총이익	0.0	0.1	0.0	0.0	0.0	-5.4	0.1	-0.6	0.1	-5.4
판관비	3.5	4.0	4.6	5.7	7.3	9.9	12.2	16.2	16.0	27.5
영업이익	**-3.4**	**-3.9**	**-4.6**	**-5.7**	**-7.3**	**-15.3**	**-12.2**	**-16.7**	**-15.9**	**-32.9**
(%yoy)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세전이익	-24.8	-5.9	-4.6	-6.2	-7.2	-15.4	-12.2	-16.7	-83.2	-33.3
법인세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당기순이익	**-24.9**	**-5.9**	**-4.6**	**-6.2**	**-7.2**	**-15.4**	**-12.2**	**-16.8**	**-83.2**	**-33.3**
(%yoy)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자료: 유진투자증권

제이브이엠

국내외 영업실적 성장 지속

[출처] 상상인증권 하태기 애널리스트

수출 내수 고르게 성장 폭 확대 중

동사는 약국 자동화 시스템(ATDPS)에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한 강소기업이다. 2025년 2분기 매출액은 25.9% 증가한 475억원, 영업이익은 58.7% 증가한 109억원이다.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을 보면 조제장비 51.1%, 소모품(MRO) 38.9%, 상품 9.9%이고, 수출 비중은 50.4%이다. 영업실적이 고성장한 것은 국내 장비 매출 인상과 수출 호조 결과이다. 2025년 3분기에는 매출액은 14.3% 증가한 427억원, 영업이익은 23.6% 증가한 91억원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도 장비 수출 호조, 장비 내수가격 인상 효과 반영 지속

2025년 하반기에도 영업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알 방식 전자동 약품 카운팅 카운트메이트의 수출 호조가 지속된다. 2025년에 한미약품의 파트너사 맥케슨을 통해 북미로 초도 물량이 발생한데 이어, 2분기에도 추가 물량이 선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반기에는 3분기에 재고 소진을 위해 잠시 쉬고, 4분기 또는 2026년에는 다시 북미향 카운트메이트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하반기에도 다관절 협동 로봇 팔의 로봇자동화 약품분류 포장시스템 메니스(MENTH) 수출 증가가 이어진다. 메니스 수출 수량이 2024년 9대에서 2025년 1분기 3대, 2분기 3대로 증가했다. 동 제품은 성장기를 맞고 있다. 유럽, 호주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의미 있게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셋째, 하반기 국내 장비 매출이 고성장할 것이다. 2025년 4월의 10% 장비가격 인상 효과가 2분기부터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하반기부터 의료파업이 마무리되면서 4분기 또는 2026년에 장비 내수 매출이 의미 있게 증가할 전망이다.

Financial Data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3	157	30	26	2,171	12.2	7.5	1.8	15.5	1.5
2024	159	31	29	2,386	8.0	4.4	1.1	15.1	2.6
2025E	181	39	34	2,952	10.1	6.3	1.7	16.6	1.7
2026E	195	42	38	3,304	9.0	4.9	1.5	17.0	1.7
2027E	209	46	41	3,549	8.4	3.9	1.3	15.9	1.7

자료: K-IFRS연결기준, 상상인증권

코미코

4가지 대세의 교집합

[출처] 미래에셋증권 김영건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20,000원으로 조사분석 개시

동사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하며, 목표주가 12만원으로 조사 분석을 개시한다. 목표가는 동사의 12개월 선행 EPS 6,688원에 목표배수 P/E 18.0배를 적용했다. TSMC의 글로벌 확장, 中 반도체의 자립, 삼성파운드리의 美 확장에 모두 동행하는업체다. 업계 평균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판단이다. 동사의 26년 전사 실적은 매출액 6,991억원(YoY +16.8%), 영업이익 1,602억원(YoY +18.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해외법인과 미코세라믹스의 성장이지속되는 와중 신규 세팅중인 일본, 유럽, 대만 타이난 2공장 등 신공장의 TSMC향매출액이 본격화되는 27년 이후까지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투자포인트: TSMC + 中 반도체 + 메모리 회복 + 美 삼성파운드리

I. TSMC의 글로벌 확장에 밀착 동행: TSMC는 국가별 대규모 지원과 함께 대만 타이난/가오슝, 美 피닉스(Fab 21), 日 구마모토(Fab 23), 유럽(ESMC) 등에 각각 신규 Fab을 설립하고 있다. 동사도 이에 맞춰 각지에 현지 법인을 구축하고 있다. 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각지에서 TSMC향 매출액이 발생할 전망이다.

II. 中 반도체 자립의 핵심 파트너: 24년 5월, 약 3,440억위안(약 66조 원) 이상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중국 대기금 3기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대중 규제가 강화된 만큼 장비에 대한 국산화 기조가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회사 미코세라믹스의 중국향 히터/ESC 수요 강세가 전망된다. 물적분할 구조 해소도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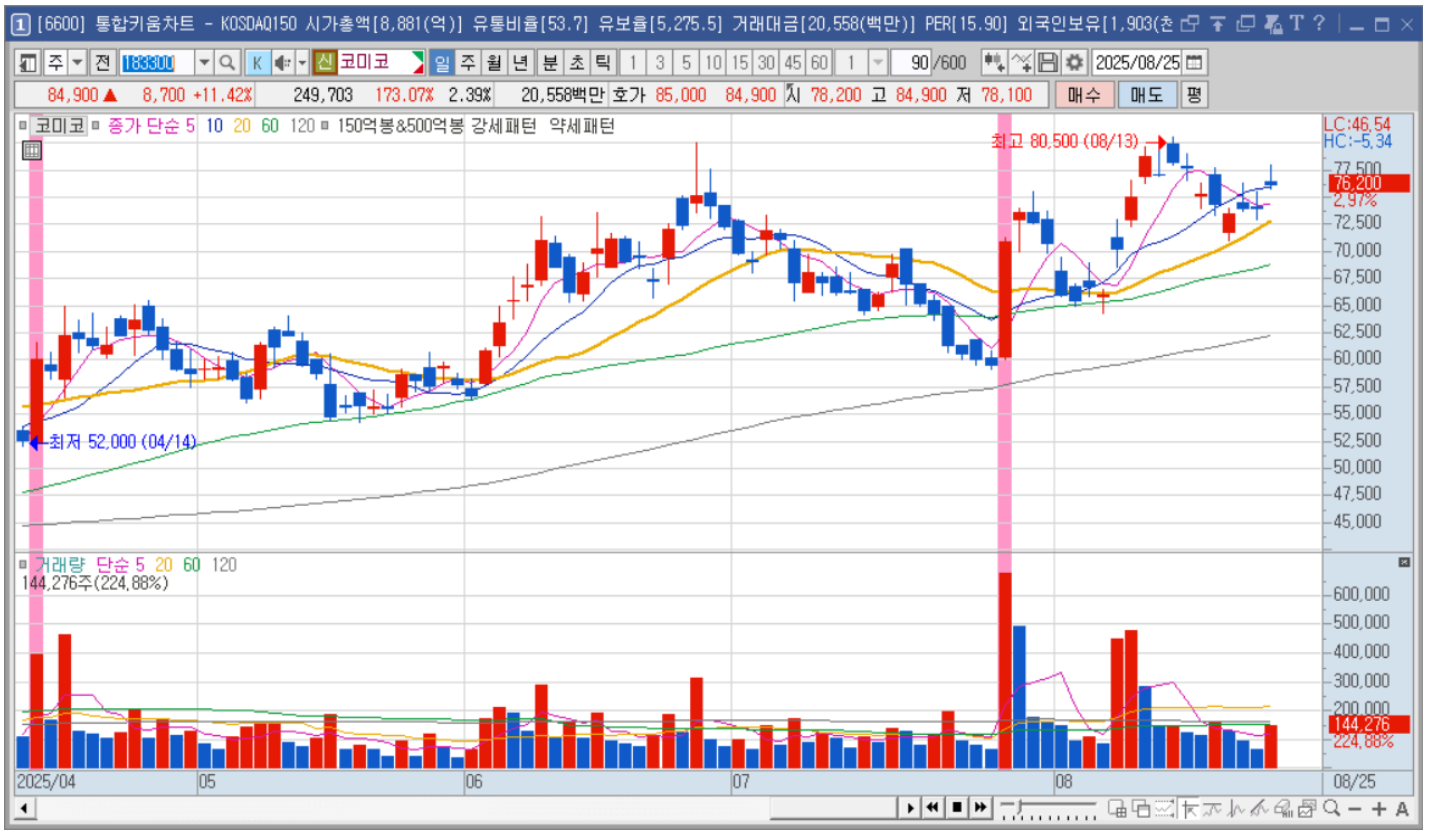
III. 韓 칩메이커 설비 증설 기대: 24년부터 칩메이커의 가동률은 회복되었으나, AI 외의 응용에서는 관세 등의 요인으로 뚜렷한 수요 개선이 부재하며 신규 투자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내년에는 IT 수요의 점진

적 회복이 기대되며 고객사 가동률 축소의 가능성은 낮기에 안성법인의 매출액 성장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IV. 美 삼성파운드리 확장 직접적 수혜: 최근 삼성전자는 테슬라로부터 165억달러규모의 파운드리 수주를 공시한 바 있다. 애플 아이폰향 부품 또한 삼성전자 오스틴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보도되었다. 동사는 삼성전자 테일러 신규 Fab을 대응하기 위해 22년부터 오스틴 법인의 가용 공간을 선제적으로 두배 수준으로 키워놓았다.

결산기 (12월)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십억원)	307	507	599	699	797
영업이익 (십억원)	33	112	135	160	196
영업이익률 (%)	10.7	22.1	22.5	22.9	24.6
순이익 (십억원)	32	56	61	75	95
EPS (원)	3,070	5,340	5,870	7,197	9,046
ROE (%)	13.5	23.4	21.1	21.7	22.4
P/E (배)	21.0	6.9	12.6	10.3	8.2
P/B (배)	3.2	1.4	2.3	1.9	1.6
배당수익률 (%)	0.6	2.7	1.4	1.4	1.4

주: K-IFRS 개별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코미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펌텍코리아

NDR 후기: 시장을 선도하는 유일무이 패키징사

[출처] 한화투자증권 한유정 애널리스트

브랜드사보다 높은 Valuation에 거래된 패키징사

언론 보도에 따르면 KKR(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은 국내 3위 화장품 패키징사 삼화 지분 100%를 약 8,000억원에 인수했다. 2024년 기준 EV/EBITDA 19배, 2025년 전망치 기준 EV/EBITDA 12배 수준으로 최근 거래된 비상장 브랜드사보다 높은 수준의 Valuation에 거래되었다. 참고로 2024년 삼화의 매출액은 1,868억원, 영업이익은 314억원, 순이익은 296억원이었다.

달라지는 패키징 업체의 입지

과거 전통적으로 화장품 Supply Chain에서 패키징은 가장 후방에 위치해 브랜드사에 종속되고 협상력이 떨어지는 산업이었다. 하지만 패키징에 차별화를 둔 한국 제품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하며, 한국 브랜드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사 역시 패키징이 곧 차별화 포인트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화장품 패키징 업체들의 입지가 단순 후방 OEM이 아닌 반독점 기술력 기반의 전략적 파트너로 전환되며 재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제품・브랜드의 유행 주기가 단축되면서 브랜드사들이 패키징 생산 라인을 과거처럼 내재화하기 어렵다는 점도 패키징사들의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80,000원으로 상향 조정(+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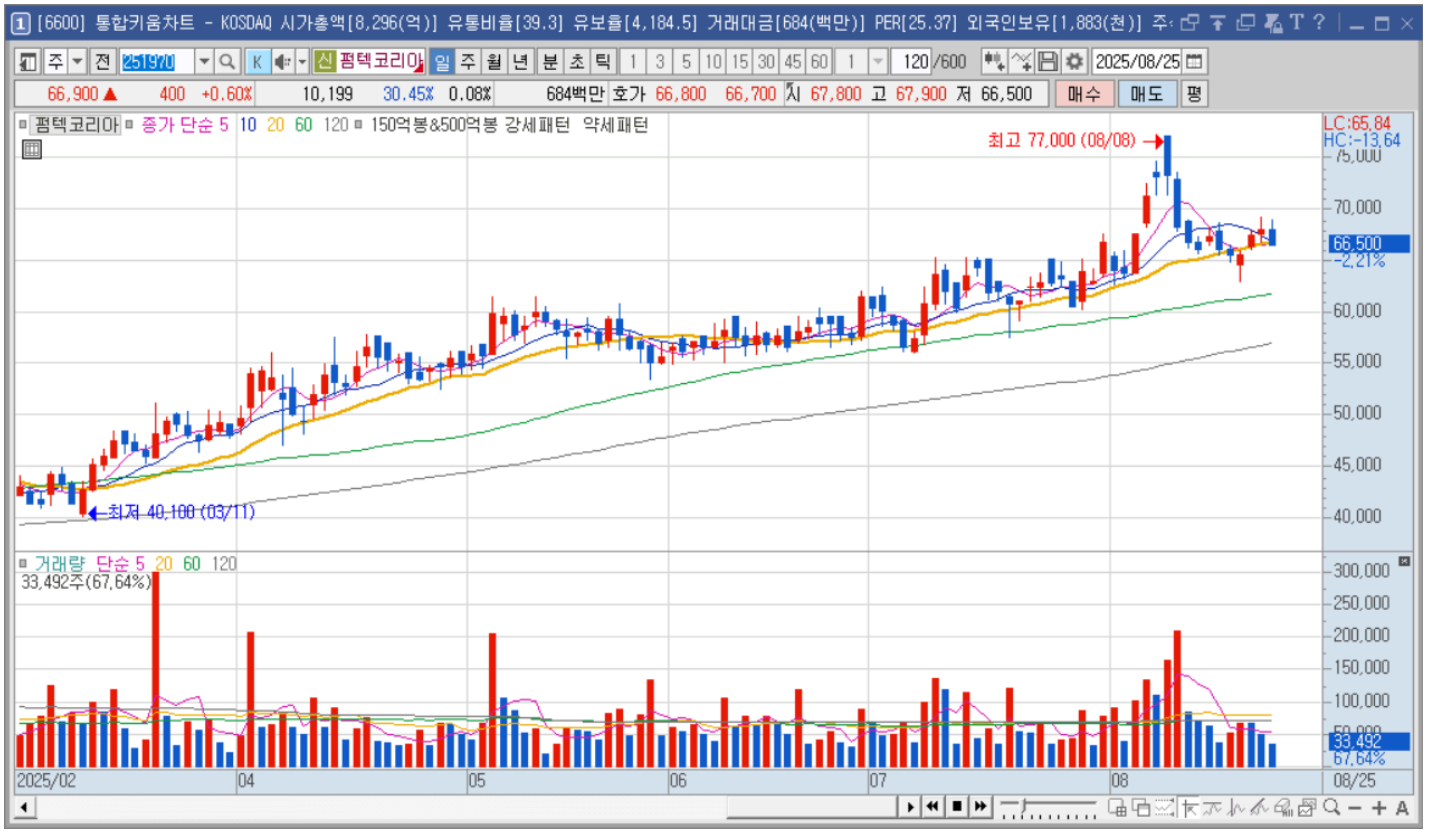
목표주가 산정 기준 시점 변경과 이익 추정치 상향에 따라 목표주가를 상향한다. 이미 2~3위 업체와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상황에서 이번 3위 업체의 최대주주 변경은 산업 내 경쟁 구도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펌텍코리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 시점에서도 펌텍코리아의 수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브랜드사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고부가가치 신제품 기여도도 또한 확대되는 추세다. 1) 2024년 하반기부터 선제적으로 진행된 4공장 증설은 10월 중 사출・후가공 라인 이설을 마치며 준공될 예정이고, 2) 6공장은 2026년 2분기 준공 예정이다. 이로 인해 4공장 준공 후 6공장 준공까지는 당분간 증설 효과가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3) 기존 공장의 라인 교체

및 효율화 작업, 4) 2025년 1월 준공된 튜브 증설동 Ramp-up 등을 감안하면 CAPA는 반기별로 안정적으로 확대되어갈 전망이다.

(단위: 십억 원, 원, %, 배)

재무정보	2023	2024	2025E	2026E
매출액	284	337	398	454
영업이익	35	48	65	77
EBITDA	47	61	81	94
지배주주순이익	27	33	44	52
EPS	2,177	2,637	3,586	4,190
순차입금	-69	-52	-68	-95
PER	11.0	8.2	18.5	15.9
PBR	1.2	1.0	2.7	2.3
EV/EBITDA	4.9	3.5	9.4	7.8
배당수익률	1.6	1.9	0.9	1.1
ROE	12.0	13.0	15.6	15.8



대한유화

강도 높은 글로벌 구조조정과 4년 만의 흑전

[출처] 하나증권 윤재성 애널리스트

글로벌 구조조정으로 업황 개선 가능성 높아져

중국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강도가 예전과 다르다. 현장 실사 후 9월 중 국무원의 구체적인 과잉생산 축소 방안이 제시되면 즉시 법적/정책적 효력 발생되고, 기업은 이후 120일 내로 폐쇄 일정 확정 혹은 설비 개조에 착수하고 180일 내 공정 50% 달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2026년 1~2월에는 폐쇄 일정이 확정되고 상반기 중 실제 설비 폐쇄 과정이 진행된다. 20년 이상의 탄소배출/에너지소비 강도를 충족하지 못한 설비는 폐쇄 혹은 개보수를 진행해야 하는데, CTO/MTO는 거의 대부분 이에 해당할 것이다. 보수적으로 중국 구조조정 대상 규모는 중국 내 12~13%, 글로벌의 2~3%에 해당할 전망이다. 한국의 구조조정 규모도 전 세계의 1~1.6%에 달해 글로벌 수급의 회복 기대를 높인다. 반면,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는 결국 중국/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정유/석유화학 업체에 원가 측면의 호재다.

산업용 가스와 한주(유틸리티) 모두 이익 체력 레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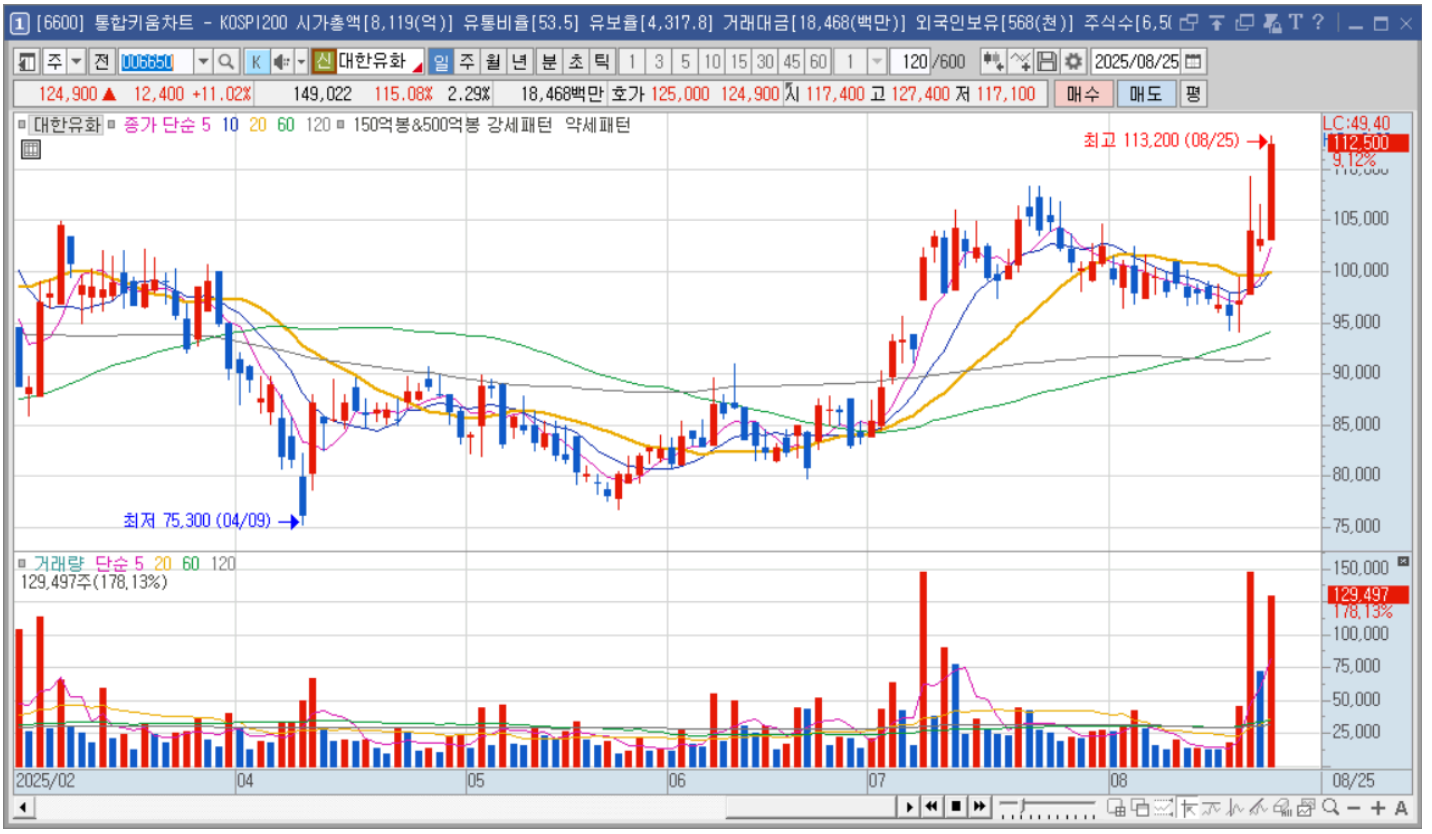
산업용 가스의 2025년 영업이익은 76억원을 추정하며, 이는 2024년 대비 +44%, 2023년 대비 +76% 증가하는 수치다. 참고로, 2Q25 기준 산업용 가스의 영업이익은 22억원(OPM 14.4%)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가동률이 2022년 40%를 저점으로 2Q25 현재 63%로 뚜렷하게 상승한 덕이다. 한주의 2024년 영업이익은 448억원으로 YoY +54%, 2025년은 905억원으로 YoY +102% 개선될 전망이다. 참고로, 대한유화 영업이익에 연결 반영되는 수치는 5~12월 누적 기준 538억원(YoY +20%)이다. 한주 영업이익의 대폭 개선은 2024년 3월 이후 LNG 열병합발전소(144MW) 가동에 따른 외형 개선, 2024년부터 15년 동안 매년 15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개별요금제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덕분이다.

높은 가동률과 절대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 2026년 순현금 전환 예상

2Q25 기준 대한유화의 NCC 가동률은 94.5%로 경쟁사 70~80% 대비 매우 높다. 이는 낮은 감가상각비와 분리막 PE 등 고부가 폴리머의 견조한 매출, 기초유분/폴리머 간의 투입 조절의 유연성 등이 결합된 결과다. 또한 절대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도 장점이다. 2Q25 기준 대한유화의 부채비율은 31%로 YNCC 338%, SK 지오센트릭 134%, 한화토탈에너지스 133% 대비 낮다. 또한 2025~26년 Free Cash Flow가 900~1,700억원 수준으로 창출되어 순차입금 2Q25 1,670억원이 2026년 말에는 순현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3Q25 영업이익은 70억원으로 흑전(QoQ +116억원)을 예상한다. 한주 실적 Full 반영, 석유화학 적자폭 축소 덕분이다. 2025년 영업이익은 46억원으로 4년 만에 연간 흑자전환을 전망하며, 2026년은 972억원으로 YoY +2,013% 개선을 추정한다. BUY, TP 15만원으로 3년 만에 커버리지를 재개한다. 2025~26년 각 사업부의 EV와 순차입금을 감안한 목표 시총은 약 1조원이다. 현 주가에서 Upside는 33%다.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 TP는 추가 상향될 수 있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500.0	2,800.1	3,419.1	3,749.9
영업이익	(62.3)	(59.9)	4.6	97.2
세전이익	(49.9)	(33.0)	38.5	96.2
순이익	(29.0)	(8.5)	14.0	38.8
EPS	(4,468)	(1,312)	2,161	5,963
증감율	적지	적지	흑전	175.94
PER	(34.24)	(59.22)	52.06	18.87
PBR	0.54	0.28	0.40	0.39
EV/EBITDA	9.31	4.63	3.65	2.08
ROE	(1.58)	(0.47)	0.78	2.12
BPS	281,297	278,659	279,869	284,882
DPS	1,000	1,000	1,000	1,000



LG이노텍

Draw Scenario, 바닥 이후 반등

[출처] 유안타증권 고선영 애널리스트

광학솔루션, 성수기와 함께 정상화를. '26년 스펙 업그레이드

광학솔루션 부문은 현 시점에서 P 와 Q 모두 개선 여력이 존재. 3분기부터 고객사 신제품 출시 효과와 함께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며, 가격 및 점유율 안정화가 본격화될 전망. 이를 통해 동사의 이익 체력 회복은 물론 수익성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최종 고객사의 판가 인하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1) 베트남 등 전략 지역 중심의 생산 효율화를 통한 원가 절감, 2) 카메라 스펙 업그레이드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과 ASP 상승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병행되는 중. 이러한 효과는 남은 하반기뿐 아니라 '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기판의 체질 개선과 전장의 방어력

기판소재의 경우 상반기 매출 개선 → 하반기 가속화 스토리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 모바일향 SiP 기판 수요 확대와 함께 FC-BGA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정비 레버리지와 수율 개선 효과가 누적되는 중. '26년에는 FC-BGA 적자 축소가 본격화되며 분기 실적 기여도가 확대될 전망. 즉, 하반기 Q 증가와 '26년 적자 축소를 통해 사업 체질 개선이 반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전장부품 부문은 '24년 기준 13.6조원에 이르는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중기 성장 동력을 확보. 저가 수주 중심의 손실 사업 효율화와 고부가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이 병행되며 실적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구조. 전사 수익성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방어망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00,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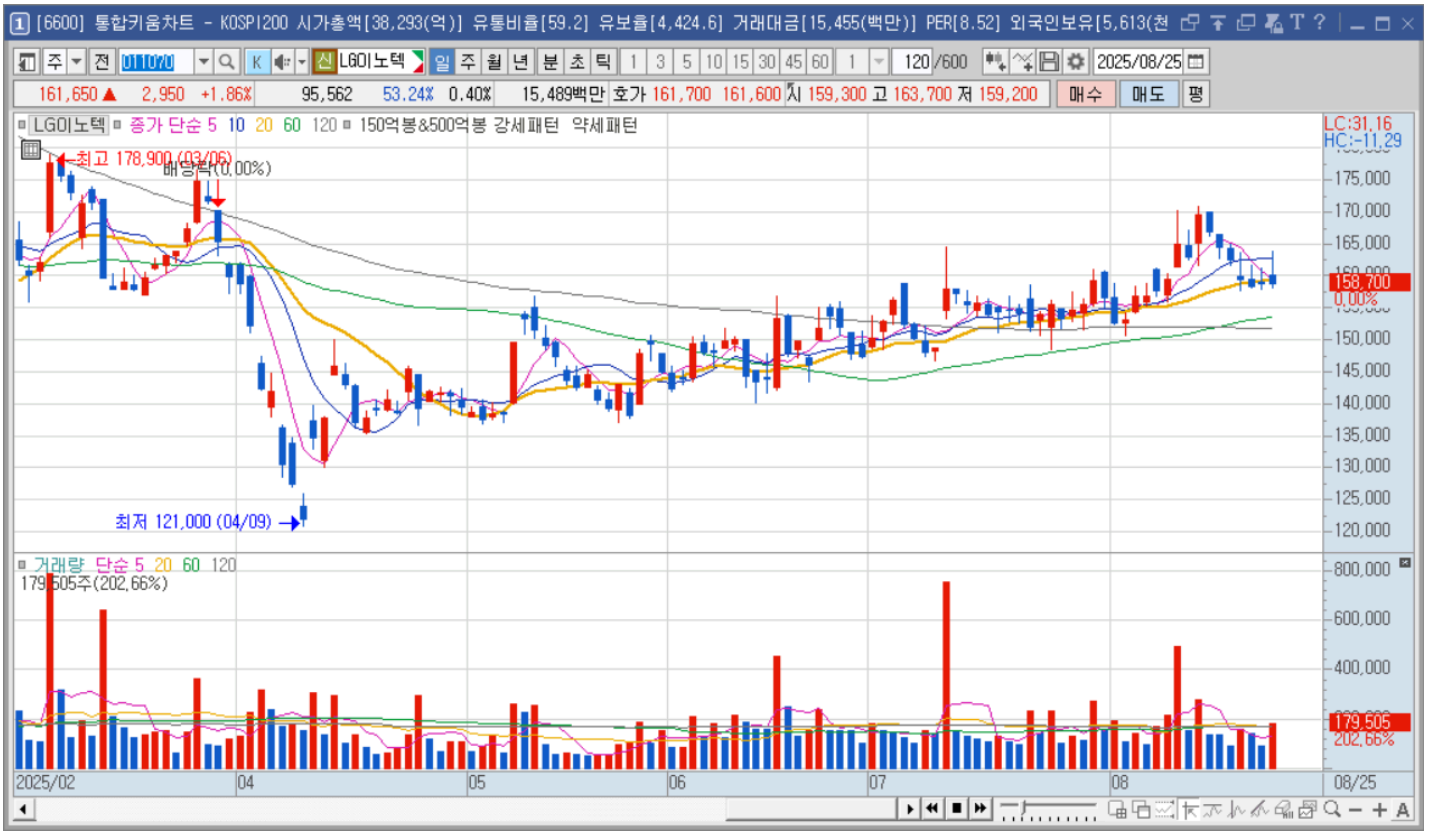
당사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200,000원을 제시하며 신규 커버리지 개시. 목표주가는 동사 12MF BPS에 '23~25년 평균 PBR을 Target PBR(0.86배)로 적용해 산출. 2Q25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으나, 하반기에는 반전이 기대. 광학솔루션 부문은 성수기 진입과 함께 가동률 및 제품 믹스 정상화가 예상. 전장부품 사업은 안정적 수익성을 유지. FC-BGA 중심 기판소재의 체질 개선 역시 바닥 이후 반등 시나리오를 지지. 남은 하반기와 '26년 구조적 업사이클 진입 가시화 여부가 향후 리레이팅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십억원, %)

	3Q25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4,842	-14.8	23.1	4,974	-2.7
영업이익	167	28.1	1,366.3	164	2.1
세전계속사업이익	148	18.9	흑전	158	-6.2
지배순이익	126	19.8	흑전	115	9.2
영업이익률 (%)	3.5	+1.2 %pt	+3.2 %pt	3.3	+0.2 %pt
지배순이익률 (%)	2.6	+0.8 %pt	흑전	2.3	+0.3 %pt

자료: 유안타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십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3A	2024A	2025F	2026F
매출액	20,605	21,201	20,744	21,953
영업이익	831	706	558	731
지배순이익	565	449	403	601
PER	11.1	11.4	9.3	6.2
PBR	1.3	1.0	0.7	0.7
EV/EBITDA	4.1	3.3	2.7	2.3
ROE	12.6	8.9	7.5	10.9

자료: 유안타증권